

말레이시아 ~ 한국



구미에 가다.



라운더 7대 말레이시아팀
지역훈련 - 구미 YMCA



구미에 가서..

1. 배우고 국제수화, 종이접기, 전통 춤, 손 유희...

2. 경험하고

장애 전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기업 방문,
나래강 공사현장, 김천 YMCA 방문...

3. 소통하고 일정에 대한 피드백, 일일 토크 회의

배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배운 듯...

종이접기 시간 너무 즐겁다. 지역 훈련 백세다

국제수화 신기하다

-김모씨(26)와의 인터뷰 중

그치만 보람있다.

-극제 수화 배우기

수화 실패, 아라고



천의 얼굴

구철영 수화 선생님

-공이접기 with 문정임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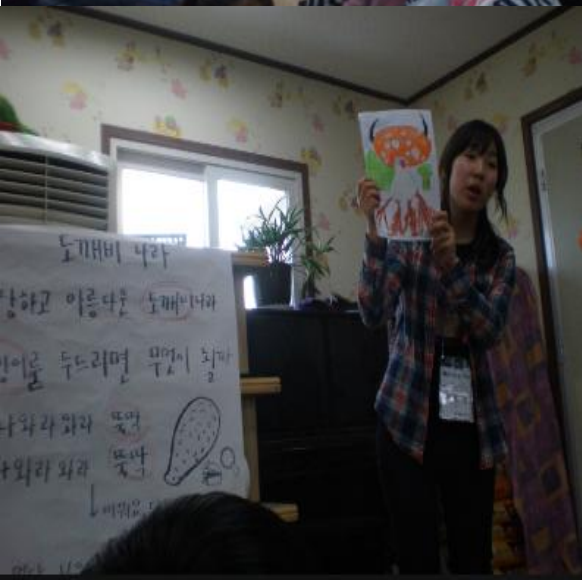


손 유희



- 고아지역아동센터 방문

프로그램 진행 함께 놀기 배식 돕기
캐리커쳐 선물



-사회적 기업 방문



해피쿠키, 아가야 등..



- 나래강 공사현장 방문



구미보 공사현장에서

설명 듣는 중...



이동 중에는

잠이 제맛.



- 장애인 체험



소통하기

서로에 대해 알아간다
가장 힘들다.

알면 알수록 다르다

아직도 이런데, 7개월은..

박혀있다 대화는 해결의 시작

다 똑같은 사람이다.

- 피드백 & 일일 팀 회의



말레이시아에 가서 싸우진 않을까 프로그램은 뭘해야하나..
서로 다른 대화 방식? 잡이 쏟아진다. 갔다와서는 뭘하지?
설마 강제귀국?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구미에 다시 오게 될까?
평생 할 고민은 다한듯..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나는 뭘 잘 할까?
짐 뭐 싸야하나.

고민들

즐거운 고통?
아... 남자친구.
체력 딸린다.

나도 모르게 혈원들에게 상처주면 어떡하지?

혈원들에게 피해주지 말아야지. 나는 왜 라온아더 뺏긴걸까?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렇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

내 가치관이 갑자기 확 바뀌면 어떡하지. 난 왜 가는걸까?

돈이 좋다. 나는 누굴까... 배운거 실천할 수 있을까.
람이 없다^^...

구미의 보습





그래도,

소중한 순간들 😊





마지막 날, 사무총장님과 😊

말레이시아로, 잘 살다 오겠습니다!